

# 전남 대표 쌀품종 '새청무', 풍광수토에 쓰인다

단일품종 보급·유통 확대 협의회 내년부터 사용비중 절반까지 확대  
턱없이 부족한 종자 공급량 골머리



농협 전남본부부는 지난 6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 새청무 단일품종 보급·유통 확대 협의회'를 열고, 내년 생산하는 '풍광수토' 쌀에 '새청무' 품종 비중을 최대 절반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부터 전남 쌀품종 '새청무'가 연 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한 전남쌀 브랜드 '풍광수토'에 쓰인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새청무 수요에 비해 종자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 등 농업 당국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본부와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 대표이사 및 장장 등 40여 명은 지난 6일 지역본부에서 '2020년 새청무 단일품종 보급·유통 확대 협의회'를 열고, 내년 생산하는 '풍광수토' 쌀에 '새청무' 품종 비중을 최대 절반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풍광수토'는 전북 '신동진' 단일품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상등급 표준화로 전면 개선했다.

풍광수토 생산·유통에 참여하는 12개 농협의 '새청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2-3년 안에 새청무 비중이 신동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농도(農都) 전남의 쌀 품종 자립'을 위해 내년 새청무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 농협이 전남지역에서 새청무를 계약 재배하는 면적은 2만ha로, 올해 면적 9500ha보다 2배 넘게 늘렸다.

새청무에 대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강화도 병행된다.

강진통합RPC와 완도통합RPC는 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각 100ha 규모 고품질 새청무 생산단지를 운영한다. 이는 농촌진흥청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확대보급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새청무 품종 최고급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단계에서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고급 영양제를 사용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과정을 따를 방침이다.

'새청무' 수요는 급증했지만 내년 국립종자

원 전남지역의 종자 생산량은 600t에 불과해 농업 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도와 각 시·군, 농협 전남본부부는 지난 달 26-27일 협의회를 열어 새청무 종자의 안정적 보급 방안을 논의하고,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보급용 생산을 최대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새청무' 품종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2009년부터 개발한 벼 신품종으로, 지난해 품종보호권등록을 완료하고 올 10월 보급용 생산이 가능한 품종으로 등록됐다. 올해 세 차례 태풍을 거치면서 병해충과 벼 쓰러짐 피해에 강

하고 밥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역RPC는 새청무 품종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사가 이뤄진 종자만 계약재배 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2019년은 전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으로 농업인이 선호할 수 있는 새청무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생산자, 지자체와 함께 더욱 체계화된 계약재배와 유통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목포수협, 수산물 위판장 신축 내년 무안에 추진 광주 5개 농협 '빛찬들 연합사업단' 수도권 판로 확대

내년 무안에 추진

목포 북항으로 이전한 목포수협이 내년 무안에 수산물 위판장을 신축한다.

8일 목포수협에 따르면 수협은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에 지상 2층 연면적 1106.01㎡(334평) 규모 수산물 위판장 신축공사를 내년 추진한다.

목포수협은 21억5700만원 규모 위판장 신축공사와 2억4600만원 규모 전기부품 공사입찰을 오는 12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집행한다. 9600만원 규모 소방·통신부문 신축공사는 수의계약한다.

목포수협은 지난 2006년 동부위판장과 2012년 활어위판장을 개장한 뒤 올해 조성된 목포시 산정동 복합 복합수산물센터 1층 건물에 1122㎡의 규모 '목포수협활어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835억원 상당을 위판하며 2년 연속 위판기록을 경신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도권 도매시장·유통센터서 평등 대추방울토마토 등 홍보

광주지역 동곡·평동·송정·대촌·본량농협과 중앙회 경제지주가 결성한 '빛찬들 광주연합사업단'이 내년 수도권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8일 농협 광주지역본부부는 지난 4-6일 사흘간 광주연합사업단과 광주본부 경제지원단이 안성농식품물류센터 등 수도권 대형유통센터와 도매시장에서 광주지역 우수 농산물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채소 구매 담당자들에게 평동 대추방울토마토, 송정 팽팡이가지, 동곡 애호박 및 흑토마토, 대촌 부추 등 원예농산물로 대표되는 광주 농산물 대표브랜드 '빛찬들'을 소개했다.

광주연합사업단은 생산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체결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계산·연합판매방식으로 매년 50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있다.



광주지역 농협 5개로 구성된 '빛찬들 광주연합사업단'이 서울 농협강서공판장에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김일수 광주본부장은 "광주지역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수도권 소비자 시장 개척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마케팅과 판촉행사를 통해 수도권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미중협상 시한 앞두고 긴장감... 변동성 확대  
순매도 집중 반도체업종 차익실현매물 ↑  
카카오 등 서비스·전기전자업종에 관심

지난주 주시장은 외국인투자자 순매도에 집중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1월7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순매도가 12월5일까지 21거래일 동안 지속됐고 매도 규모도 5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직전 최장기록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5일까지 22거래일 연속된 순매도였고 순매도 규모는 3조7000억이었다. 다행스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외국인 순매도가 지난주 금요일 유가증권시장에서 426억원 순매수로 전환했고 코스닥시장은 올해 들어 세번째로 2000억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며 코스닥시장 반등을 이끌었다.

외국인이 국내증시 순매도가 갱신했던 이유를 무엇이며 순매도는 끝났을까?

외국인 연속 순매도 이유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확대, 반도체 DRAM가격 회복 지연, 연초부터 외국인순매수가 집중된 반도체업종 이익실현, 북한 리스크 확대, 아랍과 미 알리바바 상장 등 일반에게 알려진 이유와 8월까지 진행된 미 연방준비제도(Fed) 양적긴축 영향으로 미국 은행의 달러 유동성확보를 위한 순매도가 필요했다는 의견과 11월 내내 울트라 VIX 섹터 ETF(상장지수펀드)로 자금유입이 급증했는데 상대적으로 선물옵션거래가 활발하고 환전이 용이한 코스피지수에 헛짓거리 매도를 실행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한가지 이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순매도가 집중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의 경우 연초대비 30%이상 상승하며 차익실현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코스피지수에 투자한 패시브자금 경우 지난해 2041pt 대비 상승률은 미미한 반면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연초 1115.70원에서 1189.60원으로 73.90원 상승하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평가자산으로 6.62% 손실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글로벌 주요증시 가운데 올해 최하위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해 일부 글로벌펀드의 결산 전 정리매매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12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로 연말 배당투자를 겨냥한 인덱스펀드의 매수 및 외국인투자자의 수급변화에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12월15일로 예정돼 있는 대중국 추가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나도 중요하다. 미중간 1차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이 반복되면서 시장 변동성은 확대됐고 국내증시는 약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협상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의 긍정적 발언과 중국정부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대두(콩)에 대한 관세철회 할 수 있다는 보도 등은 긍정적 흐름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 명시여부와 기술탈취를 막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인정범위가 마지막까지 갈등요인이 되겠지만 미·중간 1차 무역협상결과는 피해가 컸던 국내증시에는 매우 긍정적 이므로 이번주 협상진행상황에 관심이 필요하다.

12월은 주식비중을 축소하기 보다는 저점 매수기회로 활용하기를 권하고 싶다. 외국인 연속 순매도 이후 2007년 금융위기를 제외한다면 15일 이상 순매도 이후 대부분 낙폭을 회복하는 반등이 나타났고 반등은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된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지난 금요일 하루 순매수전환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은 있지만 순매수로 전환된 전기전자업종 및 서비스업종(엔씨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등)과 2000억이상 순매수한 코스닥업종에 관심이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